경향신문

“예술은 ‘뭐가 있겠지’ 속으면서 걷는 길…나만의 것 찾아야”

May 23, 2017 I 도재기 기자

“예술은 ‘뭐가 있겠지’ 속으면서 걷는 길… 나만의 것 찾아야”

40여년 ‘단색화’ 작업한 하종현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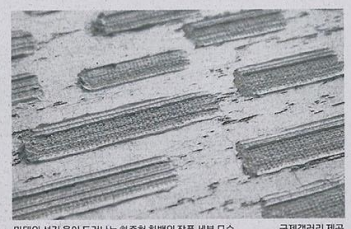
여든을 넘긴 백발의 원로화가는 힘이 넘쳤다. 밝은 표정에 씩씩한 목소리, 손짓도 활달하다. “작업을 많이 하니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아. 국내외 관심도 많아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작가가 작품세계를 인정받는 것만큼 벅차고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격랑의 한국 근현대사를 한 인간으로 살아내고, 예술가로 한국 현대미술 형성과 발전에 큰 축을 맡은 하종현 화백(82·사진). 홍익대 미대에서 공부한 그는 젊은 시절 예술적 도전과 실험에 매달렸다. 수입 시조인 앵포르멜(비정형) 추상회화도 했고, 전위미술단체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회장으로 설치와 오브제 등 전위미술을 시도하기도 했다.

예술적 방황 끝에 40대에 들어서야 그는 예술가로서 “나의 길”을 찾았다. 단색화다. 그의 작품을 상징하는 연작 ‘접합’을 시작한 게 1974년이니, 지난 40여년 한길을 걸어왔다. 미대 교수로, 미술관 관장 등을 지내면서도 그는 면벽 수도자처럼 화폭을 마주한 화가였다. “긴 시간 동안 작품을 알아주지 않았어, 죽고 나면 알아주겠지 했는데…, 생전에 이렇게 단색화 열풍이 부네.”

이제 그는 회화에 대한 고정 관념을 뒤엎은 자신만의 단색화로 현대추상화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그를 경기 일산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개인전에 갔다가 최근 귀국한 그는 “피곤한 줄 모른다”며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짓는다.

요즘 그는 그야말로 ‘잔칫한 활’을 보내고 있다. 국내외의 주목 속에 해외 유명 미술관, 국제적 명성의 주요 컬렉션 등이 잇달아 그의 작품을 소장한다. 해외 개인전도 계속하고 있다. 파리의 알민 레쉬 갤러리에서 4월부터 시작해 6월3일까지 전시회 하는데, 6월1일부터는 영국 런던의 같은 갤러리에서 또 개인전이 열린다. 알민 레쉬 갤러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손자 베르나르 피카소의 부인이자 국제 미술계에서 손꼽히는 아트 딜러 알민 레쉬가 운영한다. 전시회에는 그의 작품세계를 보여줄 초기, 중기, 최신작 대표 작품들이 선보인다. 9월에는 국제적 평론가들의 평론과 그의 작품세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록한 책도 출간된다.



마대의 성긴 올이 드러나는 하종현 화백의 작품 세부 모습. 국제갤러리 제공

여든 넘겼어도 꾸준한 활동
파리·런던 개인전 연달아
“서구는 단색화 관심 많은데 한국 미술계, 비평 등 부족”

“서구 비평가나 큐레이터·컬렉터들은 내 작품이 서양미술사의 어느 사조에 속하고, 누구 영향을 받았는지를 따지려 해, 서구중심주의지. 그래서 서양미술사 틀에 내 작품을 꿰맞추려 하지 말라, 당신들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고 말하지. 내 작품이 어떤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지.” 서구중심 미술계에 아시아 원로화가가 던지는 고언이다.

하 화백은 비평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파리에서도 느꼈지만, 단색화에 관심이 많아. 이는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지. 그런데 단색화나 우리 현대미술에 대한 학술적 자료들, 비평들이 부족해.” 비평가들이 분발해야 한국 미술이 국제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여년 전 사재를 털어 만든 ‘하종현 미술상’ 수상자에 작가 외에 평론가를 포함시킨 이유이다.

유화 물감과 마대의 성긴 올. 작가 행위가 하나가 돼 감동을 주는 하종현 화백의 작품은 숱한 예술적 실험 끝에 구축됐다. 온갖 재료와 도구들로 가득한 작업실은 그의 60년 화업을 말없이 드러낸다.

그의 작품이 뒤늦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화의 고정관념을 전복한 독창성, 재료의 물성과 작가 행위의 일체화, 질제된 조형미의 사유적 화면 등이 꼽힌다. “서구에서 볼 때 ‘이런 작품도 있었네’ 하고 놀라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 그의 작업은 일반 캔버스가 아니라 숱한 실험으로 찾아낸 성긴 올의 마대에서 이뤄진다. 마대 뒷면에서 물감을 밀어내면 올들의 구멍을 통해 저마다의 모습으로 물감이 삐져나온다. 그는 여기에 나이프, 붓, 주걱 등 특별한 도구로 긁거나 밀거나 훑어내는 등 작가 행위를 녹여낸다. 전통 수묵초상화에 배채법이 있다면 그만의 배압법이다. “마대와 물감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느끼지. 내가 하고픈 말을 그 물질들이 하도록 하는 거야.”

단색화를 흔히 ‘단순한 반복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는 못마땅하다. “그냥 반복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기존 것을 끝없이 지워내는, 새로움을 찾아내는 과정이야. 나는 지금까지 에스키스(밑그림)를 안 해. 작업을 시작하면 끝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시작하면 화면 위에서 마대와 물감이 하나 돼 온갖 변화, 유기적 움직임을 보이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나는 조화시키고.” 그는 2010년대 들어 다양한 색을 쓰기도 하고(연작 ‘접합 이후’), 화면에 붙로 그을음을 입히는 작업도 감행했다. 여전히 그의 예술적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화단의 원로인 그에게 젊은 작가들의 작업은 소중하다. “힘든 것 알지만 그림에도 과감한 실험으로 자신만의 것을 찾아야 해. 유행을 좇지 말고, 지구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구멍이 뚫리도록 한 우물을 파는, 나만의 것을 찾아내려는 각오가 필요해.”

60여년 그림을 그려온 백발의 화가에게 예술 작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술은 말이야, 뭐 있겠지 하고 속으면서 걷는 길 같아. 몹시 차갑다가 뜨겁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야.” 글·사진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20051015&code=960202